

“마을버스를 살려주세요”

광주 운영업체들, 현수막 걸고 운행하는 사연은?

5곳 지난해 22억6100만원 적자...시, 2022년 한 차례만 지원 “마을버스도 대중교통, 준공영제 어렵다면 자치구 지원이라도”

광주시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마을버스가 사라진다’는 현수막을 버스에 붙이고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5개 마을버스 운영업체(나라교통, 나라버스, 광남운수, 석봉운수, 광산버스)는 최근 마을버스에 ‘사·구 공동분담으로 마을버스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버스에 게시했다. 이들 업체는 광주 마을버스가 지속적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이 끊겨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서 재정 문제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할 수 없다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라도 나서 지원금을 부담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들 업체는 비수익 노선이며

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구석구석을 운행하는 서민들의 발이다.

각 업체에 따르면 광주시 5개 마을버스 운영사 적자액은 2021년 12억 1800만원, 2022년 20억 9100만원, 2023년 22억 6100만원 등 증가세다. 광주시의 마을버스는 모두 65대로, 한 대당 연간 3500만원 수준의 운영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적자의 주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이 꼽히는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비가 상승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높아진 것이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우 전쟁 이전에는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가 69%, 연료비는 12% 가량이었지만, 전쟁 이후 연료비 비중이 운송원가의 25%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을버스 매출액은 2021년 마을버스 매출은 54억 5100만원에서 2023년 55억 130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연료비는 2021년 10억 6900만원에서 2023년 17억 51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업체 대표까지 나서 직접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운행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 설명이다.

더구나 광주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마을버스는 그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없는 처지라고 업체들은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요금 기준 카드 1250원, 현금 1400원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저렴하며, 지난 2016년 이후 8년째 동결 중이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시가 마을버스에 운영 지원금을 준 것은



3일 광주시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에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금 제공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산버스 제공>

2021년 9억 4000만원, 2022년 9억 6400만원 두 차례에 그쳤다. 한 해 마을버스 운영적자분 중 연료비상승분에 대해 70%를 시비로 지급하고,

30%를 구비로 지급하는 식이다.

2022년의 경우 북구와 남구는 구비로 지급했지만, 광산구는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에는 자체 매칭금액 제공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관계자들은 마을버스도 시내버스·도시철도와 함께 법적 대중교통으로서, 시내버스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광주시 구석구석까지 교통편을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의 ‘실핏줄’로서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신 광산버스 대표는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시·도에서는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거나 사·구 매칭을 통해 적자노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변변한 지원 대책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며 “시내버스 요금 동결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가중된 운영적자를 단독 부담하는 가운데 마을버스는 외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커피로 그림 그려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빅도어 야외무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아트마켓’ 현장을 찾은 어린이 방문객들이 커피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4 아시아문화주간’ 대표행사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아트마켓은 17개국 80개 부스가 참여한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된다. /나명주 기자 mjna@

광주시교육청 국세 감소 ‘불똥’...재정운용 ‘비상’

교부금 1544억 추가로 줄 듯

올해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3385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시교육청에 교부되지 않은 데 이어 추가로 15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국가 예산에서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 추산 5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도 154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385억원 감소에 이어 추가로 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과 현안 사업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도 분예산 역시 올해 말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일몰이 예정돼 있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 운용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부금 감소분을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전출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4년도 분예산 편성 시 기금 사용 한도액을 거의 소진했고, 기금 적립 규모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상황이다.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시교육청은 미추진 사업과 재량 사업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기초수급자 절반 ‘노인’...빈곤 노인 대책 서둘러야

지난해 9만6923명...매년 증가세

광주·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시 강서구)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전체 기초수급자 20만 3713명 중 47.57%(9만 6923명)

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노인 기초수급자 수는 2019년 2만5692명(33.72%), 2020년 2만 9438명(34.73%), 2021년 3만 3639명(36.74%), 2022년 3만 6396명(38.66%), 2023년 3만 8822명(40.24%)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 역시 2019년 4만 251명(46.26%), 2020년 4만 3702명(47.16%), 2021년 5만 1842명(51.09%), 2022년 5만 5050명(52.90%), 2023년 5만 8101명(54.18%)으로 증가했다.

전남 지역의 노인 수급자 비율은 강원(55.54%), 부산(55.1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반면 광주는 40.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할 것”이라며 “빈곤 노인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구급대원 폭행사범 ‘숨방망이 처벌’ 여전

광주·전남에서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이 숨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8월)간 광주·전남지역 구급대원 공무 중 폭행 사례는 51건(광주 27건, 전남 24건)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2020년 7건,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2024년 5건으로 매년 꾸준했

고 전남 역시 2020년 4건, 2021년과 2022년 6건, 2023년 5건, 2024년 3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고 집행유예나 내사종결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

광주의 경우 27건의 폭행 사례 중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전남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8명이 벌금형을, 5명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다. /김다인 기자 kdi@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